



이현주 목사

나는 국수를 좋아한다. 국수라면, 어떤 국수라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냥 좋다. 이유야 어찌 없을까만 본인이 잘 모르니 없는 게 아니란 것이다. 내가 가끔 불경을 읽고, 부처

없다고 말하면 그게 억지 아니고, 무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내가 혹시 먼 옛날 산 속에서 불도를 뒀던 수도승이 아니었을까 가끔 생각한다. 불경에서 읽는 단어나 개념들이 어색하지 않는 까닭이 그래서일까? 모를 일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이 겪었던 모든 일이 내 몸에 유전자 형태로 간직되어 있지는 과학이 입증해 주고 있지 않은가.

아무튼 나는 이번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 운명이라면 운명인데, 이 운명을 나는 사랑한다.

### 절로 고개 끄덕여지고 마음편해져

님 말씀을 듣는 것도 내세울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그냥 좋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편해진다.

사실, 이 나라에 태어나 살면서 자기는 불교와 아무 연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낯지 않지만 그 전에도 이 땅에 살았다. 내 몸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천지 같은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한테서 나온 것인 줄을 알기에 하는 말이다. 내 부모가 산 곳은 내가 산 곳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절에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지냈으면서 인연이

그 예수 스승님이 내게 석가모니 스승님을 소개해 주셨다. 덕분에 요즘 나는 석가모니를 예수든 그건 '이름'일 뿐이고,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한 분이(하나)가 존귀할 뿐임을 조금씩 감(感)으로 알아 가는 중이다.

스승께서 당신 일을 하신 것이겠지만 나로서는 고맙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차귀 천도교 부산시 교구 여성회장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종교라고 알고 있다.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종교인 불교는 그래서 아주 은근하면 서도 강한 설득력을 가졌다.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산사가

개신교계에서도 상당한 지명도를 갖고 있는 이현주 목사는 지난해 <금강경> 해설서를 펴내 불교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석발하고 스님들과 함께 인연에 드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공부하는 신부, 수녀도 있다. 이들이 불교

고 능동적이다. 불자들의 그러한 실천행은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나 스스로의 마음 공부에는 철저한 불교의 저력이라고 여겨진다.

불교에서 한가지 인상적인 것은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대외적인 활동면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종교로서의 불교 저변에는 항상 어머니가

### 마음에 위안, 은근·강한 설득력

인간에게 주는 마음의 위안 같은 편안함, 불교는 그런 은근한 공감능을 가지는 큰 장점을 가졌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에서 활동하면서 나는 여러 종교인들을 만나는데 특히 불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불자들을 만날 기회가 잦은 편이다. 내가 자주 만나게 되는 불자들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매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것은 나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자비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인

있었다고 느껴진다. 며칠 전 만났던 택시기사는 자신이 운전불자기사회 회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원래 기독교 신자였던 자신은 어머니와 아내 덕분에 불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면서도 인상적인 것이다. 여성분과의 일을 맡아 여성종교인들의 힘을 결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불교의 최대장점이 여성불자들의 활동으로 보인다. 앞으로 불교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조직화, 체계화되면 불교는 보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한다.



이영석 SJ 예수회 수사

### 나를 해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서 불교는 열린 사유의 장이다. 부처님 재세시 이래 불교는 늘 열린 마음으로 의도들과 도법의 정수를 나누어 왔으니,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학 시절 읽었던 <묘법연화경>은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속에 신비하리 만큼 유사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제4품

깨워주기에 흥분하다.

나는,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영적 각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 해방도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란 물음에 두 종교 모두 '자기 인식'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라고 선언하고 있다. 불교는 '일승묘법(一乘妙法)'과 '무상(無常)의 진리', 즉 공(空)이라는 법(法)이 자아를 부정하고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

고 한다. 그리스도교 역시 '사랑 받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과 '하느님의 사랑'이 자기 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가르친다.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나를 해방시키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때문이다.

## 타종교인들의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

'부처님 오신 날'이면 늘 절을 찾는다. 불자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사람은 잘 채워진 삶을 살아가기 쉽다. 빈 구석이 어딘지는 있겠지만, 나도 때로 소리에 지칠 때가 있다. 평생 낯지 않는 이명증(耳鳴症)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노라면 당연히 번거로운 일이 한들

을 방편 삼아보는 무엄함을 저지를 밖에.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이면 더 좋다. 거기서 고요를 듣는다. 그러면 조금은 이명증이 가시는 것 같다. 그렇다고 소리가 없지는 않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소음이 없을 까닭이 없다. 적막이란 마음이 빛는 것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짐작 못하는 바 아니다. 그래서 거기 그 소음

이 아니다. 하지만 귀가 잠잠하지 않으면 괴롭다. 마음이 번개로 위되고 가슴이 답답하다.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가끔 귀를 막아보지만 소용없다. 고요와 적막에 그리움, 혹은 목마름이 이렇게 간질할 수 없다. 고요가 없는 텅 빈 삶을 소음이 채우고 있다는 것은 헛된 구석의 역설적 현존이다.

그래서 가끔 산사(山寺)를 찾는다. 어찌랴. 어찌피 나 스스로는 되지 않는데, 그렇게 산사

에 짜증낼 만큼 어리진 않다. 분명한 것은 첫소리와 나무소리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다형스럽게도 내 이명증은 나무소리에는 착하다. 설법의 소리가, 묵탁의 소리가, 독경의 소리가, 그리고 범종의 소리마저 첫소리이기를 그만 둔 소리일 때, 그 고요의 소리가 나는 좋다. 불교가 그래서 좋은지, 아니면 그러기를 바라는 마지막 자리라고 믿어 좋은지 모르지만.



정진홍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산사에서 듣는 '고요의 소리' 좋아

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내밀한 고백은 우리가 모르면, 혹은 알고도 지나치기 쉬웠던 불교의 또 다른 진면목을 일깨워 줄 것이다. 또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에서 갈등 많은 우리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갈 해법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나는 사진가로서 그동안 많은 출판 매체를 통해 불교 관련 사진들을 발표한 관계로 이들 사진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가로 알려져 있다.

내 사진이 채택되는 이유는 자료가 많기도 하지만 순수한, 불교적 친근감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나는 학문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 학도이지만, 불교학도이기 전에 수도자로서 수행전통을 지닌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자 마음먹었던 것은, 단순히 학문적 접근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수도자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쪽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

수행 전통을 중심으로 한 불교는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물게 만드는 또 하나의 화두로 다가온다.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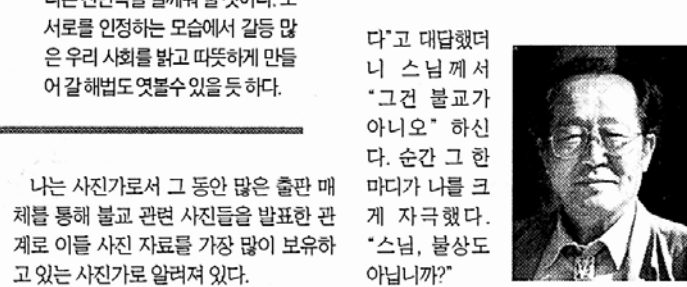
이러한 수행의 길이야말로 불교가 참종교로서 그 맥을 이어 오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교적 진리가 나로 하여금 불교를 단순히 내 밖의 타종교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초대

### 방황하는 현대인에 참 길길 제시

물고 또 물는 수행자들이 있는 불교는 그래서 내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불교는 참선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를 존재의 진리로 초대하고 있다. 세상풍파에 시달려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떠돌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참선은 자신의 존재성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한다.

하여 그 세계에 깊이 심취하게 만든 이유며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이유다.

혼탁한 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할 일은 그 혼탁함이 남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임을 자각케 하는 일이다. 이를 자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요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일일 것이다. 현대인들이 불교의 선수행에 관심을 갖는 것도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금 평화해 보려는 내적 갈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 많은 이들이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참선수행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해 본다.



김대벽 사진가

### '불교 보려면 선방에'...스님말 못잊어

사진은 마음의 기록이다. 특히 불교적인 내용의 피사체들은 그 자체의 오랜 역사성과 깊은 내면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느낌을 영상화해야 한다.

60년대 초 학생 잡지 <학원> 사진부장으로 일할 때 해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일주일 앞 마당에서 탐돌이 하는 여인들이 있기에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샷을 깊숙이 쏘신 노스님이 다가오시더니 "무엇을 찍소?" 물으신다. 얼추 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어서(때는 '탐돌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불교를 찍으려고 합니

보시오."

이후 나는 절에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스님과의 대화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모태로부터 기독교인으로, 신학도 공부했고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직임도 맡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불교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접하면서 촬영하는지도 모른다. 불교뿐 아니라 우리 민중 속에 깊이 파고 들어 있는 무속이나 민간신앙에도 깊은 관심으로 접근해 촬영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수천년 이어온 한국인의 심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립 | 정가 8,000원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전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품 · 중품 · 상품연화  
아미타불의 부촉 / 인간세계로 돌아오다.....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좋은 佛書 좋은 佛子를 만드느니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 02)722-0292~3

붓다의마음

# 이공전

## 설산 스님의 그림 에세이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알몸으로 와서 일구고 살다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어느 곳으로 가느냐?

신국립 / 208쪽 / 값 9,0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圖書 三 養 전화 02)762-5166~7 · 팩스 02)762-3973